

Spring. Vol.12

since 2002
소통과 도약의 **EM** 실천
Empowerment Society

희망 실천



Contents

Spring. Vol.12

03 신년 인사글

04 2011년 하반기 프로그램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지원 '근로장애인 역량강화프로그램'
_은혜동산교회 목사 김은비
-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원미
- 가족과 함께한 '가을나들이'
- 한자공부 '자격증 따기'
- 안전교육 구로소방서 '불났어요, 뽀뽀뽀'
- 2011년을 추억하며

14 특집기사

- 독립주거 2탄 '혼자서도 잘해요'
_ 여성주거시설 '꿈꾸는 집'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신우리
- 남부발전과의 '동행'
_한국남부발전(주) 계약자재팀 팀장 김상덕

18 2012년 사업안내

- 2012년도 달라질까? 복지정책
- 2011년 사업평가 · 2012년 사업계획
- 2012년 EM실천 사업일정

24 NEWS

28 광고

발행일 2012. 3. 16 발행인 김영한 발행처 EM실천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93-6 대륭테크노타운 6차 1004호
전화 02)875-9744,9733 팩스 02)875-9965 홈페이지 www.em21c.com

“ 「EM실천」은 Empowerment Society의 줄임말로 개인의 역량 강화, 조직의 역량강화, 사회의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동반자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 지나 온 10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하며.. ”



EM실천 원장 김 영 환

안녕하세요. EM실천 원장 김영환입니다.

2012년 새해가 시작된지 벌써 3월이 되어 갑니다. 새해를 맞이한다는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다시 계획된 일들을 시작하고 움추렸던 몸과 맘을 펼때군요.

‘2012년’

EM실천은 뜻깊은 한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M실천이 직업재활시설로 운영된지 벌써 10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40평내외의 지하 작업장을 시작으로 지금의 금천구 가산동에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내집마련을 위해 10년의 시간이 걸렸네요. 2009년 이곳 가산동으로 입주할 때의 감동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벌써 10년이라니...

EM실천과 지나온 시간을 모두 함께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함께한 모든 분들을 추억하며 한해를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은 **"소통, 그리고 도약하는 EM실천"**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EM실천이 10년이 되는 올해에 앞으로의 10년을 위해 많이 듣고 실천하여 더 열심히 도약,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M실천을 알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며 EM실천의 미래도 기대해주세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EM실천에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꿈..”

안산은혜의동산교회 목사 김 유 비

누군가에게 꿈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가지 마음이 든다. 기대감과 두려움이다.

‘혹시라도 내가 말하는 몇 마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대하게 되고, ‘혹시라도 이 말이 듣는 이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주지나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두려움이다. 특히나 이번 강의 부탁은 유독 이 두 마음의 저울질이 격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한 축이 무너져 내렸다. 균형이 완전히 깨진 것이다. 무너진 것은 두려움이다. 강의를 하는 내내 마음에 기대감으로 행복했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 아무런 가식 없이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오는 삶의 진솔한 고백들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 자신 만의 꿈을 간직하고, 자신 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향해 진지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결혼 하고 싶다는 사람, 부자가 되어서 부모님의 고생을 끝내주고 싶다는 사람, 대통령이 되어서 세상을 좀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사람,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소중한 자녀를 낳고 싶다는 사람...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들이 보여주었던 순수한 눈빛에서 가식 없이 전해지는 소중한 꿈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을 보았다. 눈 뜰 수 없이 나를 향해 비치는 그 태양이 그들의 꿈인 것처럼 나를 강하게 비쳐준 것이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나는 기도한다. 그들의 꿈이 곧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가능성”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 원 미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해 함께한 EIM실천 회원분들과의 6번의 만남은 나에게 작은 설레임을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1, 2기 회원들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고, 성장시켜나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나 또한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모습을 돌아보며 함께 발맞춰 더욱 무궁무진한 가능성들을 찾아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 또한 잊을 수가 없습니다.

2기 여러분들과의 첫 번째 만남 날, 올여름 유난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날이 많았죠, 전국이 정전사태가 일어났던 날~! MBTI성격유형 검사를 통해 나를 알아보는 시간을 시작하려고 한 그 때! 갑작스런 정전으로 조명은 물론 노트북, 심지어 찜통더위에 에어컨까지 가동되지 않은 그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회원들의 센스 있고 유머러스했던 반응들... “돈 주고 사우나도 하는데 우리는 오늘 자연 사우나를 하네요.” “아무래도 나를 알아보는 시간에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서로가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모습에 회원분들과 앞으로 함께하게 될 시간에 더욱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매 시간 시작에 앞서 1주일간 생활하면서 생각한 감사한 일들에 대해 목록으로 정리해보고 각자의 감사목록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 대해서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작은 일상 중에 소소한 행복과 감사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2기 회원들 나와 함께한 시간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각자를 알아가고, 더 나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시간들... 그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통해 나 또한 충전될 수 있었습니다.

역량강화프로그램은 끝났지만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깨워나가기 위해 알람시계를 열심히 맞추고, 시계약도 잘 챙겨주고, 먼지가 쌓이지 않게 잘 가꾸는 준비를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준비와 시도를 멀리서지만 저 또한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직업재활팀 사회복지사 양 현 모

10월의 어느날. 넓고 푸르른 가을하늘을 벗삼아 EM실천은 사랑운수 버스를 타고 파주로 달렸다.

오늘만큼은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겠노라 다짐을 하고 모두들 룰루랄라 신이났다.

1시간 반정도 달렸을까?. 버스는 피자냄새가 가득한 임실파주치즈스쿨에 도착하였고 폐교를 개조하여 만든 건물에서는 피자만들기, 치즈체험, 썰매, 전통체험등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도착했을때는 이미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너나할것없이 깔깔거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였다.

우리도 질수 없다! 모두들 손을 깨끗이 닦고 피자만들기 체험장으로 들어갔다. 준비된 재료들이 선반위에 올려져있었고 4명씩 한팀을 이루어 밀가루 반죽을 둥글게 펴가며 피자빵을 만들기 시작했다. 반죽을 밀다 지도선생님의 멋진 시범으로 모두들 눈이 둥그레져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렇게 동그랗게 찢진 반죽에 소스를 펴바르고 토핑을 올려 피자를 완성시켰다. 모두들 진지한 모습으로 피자를 만들었고, 특히 어머님들께서는 아이와 같이 즐거워 하였다. 우리가 만든 피자가 과연 맛있을까? 피자가 구워지는 동안 우리는 2층의 치즈체험장으로 이동하였다. 담당선생님께서 치즈가 만들어지게 된 유래를 만화를 통하여 재밌게 설명해주셨고, 설명이 끝난후에는 퀴즈를 내어 슬라이스 치즈를 상품으로 주었다. EM실천의 지식인 박동진오빠가 멋지게맛취 슬라이스 치즈를 맛볼수 있었다.

드디어 치즈만들기! 딱딱한 치즈성분을 깎두기크기만큼 뜯어 놓고 뜨거운 물을 붓자 조각들이 연해졌고 그것을 주무주물 뭉쳤다. 뭉쳐진 치즈를 늘렸다 폼다를 5번정도 반복하면 맛있는 치즈가 완성된다고 하였다.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늘렸다 폼다 작업. 구멍이 난티도 있었지만 모두들 집중력을 발휘하여 치즈를 만들고 만들어진 치즈는 준비된 통에 넣어 기념품으로 증정되었다. 치즈를 만드는 사이 다시 1층 피자체험장으로 이동하여 우리가 만든 피자로 점심식사를 하기로 했다. 두근두근 기대이상의 맛이였다. 스파게티와 피자한판씩 똑딱한 뒤 이번엔 밖으로 나가 다음체험을 진행하였다. 롤러코스터처럼 펼쳐진 썰매를 타며 소화를 시킬때쯤 뽕튀기체험장에서 흘러나오는 냄새가 우리의 코를 자극했다. 오랜만에 보는 뽕이요~! 체험장에 들러 뽕튀기 체험을 하였다. 언제터질지 몰라 조마조마해가며 튀겨진 뽕튀기는 정말 고소했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심취했던 우리들.. 벌써 마지막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었다. 농촌에 온듯한 기분을 느낄수 있었던 송아지 우유주기! 한명씩 돌아가며 송아지도 만져보며 우유를 주었다. 송아지들은 하루에 7시간을 밥을 먹는다고 한다. 그렇게 송아지 우유주기를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가을의 마지막을 한컷의 사진으로 남겼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을의 정취와 색다른 체험활동을 할수 있는 즐거운 나들이였던것 같다. 우리 피자 또 먹으러 가요~!

“자격증 따기”



무더운 여름에 한문공부를 시작했다. 공부시작한지 3개월이 지나고 어느 새 가을이 문앞에 와 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고 독서의 계절이다. 절기로 공부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중학교 선생님의 맛있는 한자필체를 보고 한문시간을 좋아했다. 그때 한문이 기억에 남아있는데 마침 EM실천에 근무하면서 5명의 회원과 사회복지사선생님 한 분과 함께 한문공부를 할 기회가 왔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틈틈이 강의를 듣고 시간을 내어 반복적인 학습으로 숙달해나갔다. 속제도 많아서 11시까지 밀린 숙제를 하느라 힘든 적도 있었다. 그래도 서로 돕고 화원간에도 책임있게 알려주고 선생님도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마침내 검정시험 6급을 접수하여 10월 15일 성동 글로벌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쳐서 당당히 자격증을 받았다. 높은 급수의 자격증은 아니지만 마음은 뿌듯했다. 그런데 혼자 공부 안되고 뭇쳐서 할때 공부하고, 목표가 있을 때 자격증을 높은 것을 딸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더 공부를 해서 4급 시험을 통과하고 싶은 바램!!

조은숙

한자공부를 중고등학교까지 해보고 어른이 되어 한자공부를 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는 원래 중국어를 대학에서 전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중국어나 한자를 잘알고 있었지만 그와 관련한 자격증은 없었다. 일본보다는 친화이나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난, 한자야놀자 프로그램을 통해 한자관련 자격증을 한다는 소식에 누구보다도 먼저 한자야놀자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냈었다. 공부하는 것을 원래 좋아하는 나지만 생각보다 쉽지않은 않았다. 내 수준을 너무 높게 본 담당사회복지사는 한자능력시험 3, 4급까지 모의시험을 봤지만 점수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난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6급시험에 도전했다. 하하하 드디어 내 인생 두 번째의 자격증을 떼다 EM실천을 다니면서 나의 최고의 업적은 자격증을 떼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하고 싶다. 나의 자격증 성공기를 기대해 주세요.



민성준

2011년 6월 10일 한자공부시작~~ 나는 한자공부를 왜 하려 했을까? 박학다식(博學多識)한 편인 난 한자 또한 나름대로 잘 아는 편이나 이제 내 나이 54세, 한자를 볼때 마다 깜박할 때가 너무 많다. 한자야놀자를 하면서도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모의성적이 향상되고 담당선생님의 칭찬과 기대를 느끼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다. 나도 시험한번 쳐 볼까? 드디어 10월 15일, 6급 한자능력시험을 동료인 조은숙언니, 민성준씨와 함께 치렀다. 11월 3일 대망의 시험결과 발표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 내 눈에는 합격이라는 커다란 글씨, 가슴이 확 트이는 기분이 들었다. 2012년 나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사범시험까지 치러볼 예정이며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황찬희

자신감이 부족한 나는 공부라는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한자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의 실력이 만만치 않아 나는 처음의 자신감이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내 수준에 맞는 자격시험에 도전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생각보다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난 시험신청을 했지만 시험준비를 충분히 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부담되어 시험을 치지 않았다. 하지만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동료들을 보니 자신감없던 나의 모습이 부끄럽기만 했고 2012년엔 무슨일이 있어도 한자시험을 취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회자

자신감이 부족한 나는 공부라는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한자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의 실력이 만만치 않아 나는 처음의 자신감이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내 수준에 맞는 자격시험에 도전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생각보다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난 시험신청을 했지만 시험준비를 충분히 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부담되어 시험을 치지 않았다. 하지만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동료들을 보니 자신감없던 나의 모습이 부끄럽기만 했고 2012년엔 무슨일이 있어도 한자시험을 취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합격을 기원하면서...



홍정기

“불났어요, 배뽕배뽕”



총무기획팀 사회복지사 박수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불조심!

2011년 11월 7일 빨간 낙엽이 무수히 떨어지던 가을 날 EM실천은 하반기 소방교육을 받으러 구로소방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EM실천을 구로소방서 앞에서 반갑게 맞이해주시던 김영호소방관님!

약 한 시간 동안 소화기시물레이션, 지진체험관, 화재 시 대피 등을 교육 받았고 구로소방서 안전체험교실에서는 소방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체험장에서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119 신고하기, 소화기 시물레이션, 연기피난, 지진 체험관, 구조대 및 완강기 대피 등 현장감 넘치는 소방안전교육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 ① 닫힌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 ② 가스 및 밸브를 잠그며, 식탁 밑에 방석으로 머리를 가립니다.

화재 시 연기 속 대피요령!

- ① 손수건 옷 등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보호합니다.
 - ② 자세를 최대한 낮추어 벽을 잡으며, 비상구 불빛을 따라 신속히 대피합니다.
- ※ 약한 불일 경우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진화합니다.

소화기 사용법!

- ①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한 손으로 소화기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손잡이 앞쪽에 있는 안전핀을 힘껏 잡아 당겨 뽑습니다.
- ②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뽑아 불이 난 곳을 향합니다.
- ③ 손잡이아랫부분을 잡고 불이 난 곳으로 가까이 접근하고 손잡이를 움켜잡습니다.
- ④ 불길 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분사합니다.

소방교육이 딱딱한 이론 위주의 아닌 직접 체험을 통해 배우게 되어 더욱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시 한 번 소방교육을 해주신 구로소방서 홍보교육팀에 감사의 말 씁니다.



2011년

함께한 사람들...

홍 성 철 (EM실천 홍정기님 부친)

다사다난했던 2011년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올한해를 마감 하면서 되돌아보면 장애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EM실천에서 근로사원으로서는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퇴직연금에도 가입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족들은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무릅쓰면서 장애인이 일하기에 매우 적합한 직업재활시설인 EM실천을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과 애정과 사랑의 힘을 주신 EM실천시설장님을 비롯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장애인 가족의 고충

정신질환치료는 투병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은 단기간에 완치 되지않고 평생치료해야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저의 막내 아들은 1985년 봄 한국외국어대학 2년 재학중(당시21세)에 원인도 모르게 갑자기 발병되어 급년 48세가 되어 27년간 긴 투병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완치 후 사회진출의 희망을 걸고 그동안 온가족의 눈물나는 사랑의 힘으로 억지로 대학 4년을 졸업하고,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군 복무 (병무청근무)를 마쳤습니다마는 우리가족들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런 긴 여행입니다. 투병기간의 장기화로 부모님의 나이도 년노(年老)하게되어 노환(老患)으로 고통받고 소득없이 계속되는 치료비용의 지출로 우리환우가족들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고충이 많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부모입장에서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 중 한사람의 정신장애로 그 가정의 행복은 깨지고 불행한 세월을 보내게 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은 일반 신체장애인에 비하여 가장심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가족의 고충을 어느 한가정의문제로 치부 하고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질은 매우 빈약하고 낮은 상태입니다. 2012년에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사정이 좋지않다고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EM실천의 근로사원들의 재활의지를 다지게 하고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해서는 EM실천이 어떠한 도전도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여야 하겠습니다.

EM실천 가족분들!! 힘을 합쳐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EM실천 가족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한해 되세요.**



좋은인연 EM식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과장 박진제

이엠식천을 만난지 10년입니다.

첫 직장에서 소식지 우편발송을 대행하던 거래처로 알게 되었지요.

반송되는 우편물에 묻은 풀 자국 때문에 인상을 찌푸린 기억이 있지만, 이엠식구들의 사연을 알고부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니까요.

일주일에 두 세번 주문한 책자를 들고 방문하는 이엠 식구들을 만납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담당자 이름을 크게 외칩니다. 당당하고 그침이 없습니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서 이들을 맞이합니다.

각자 할 일을 마치고는 미련 없이 돌아갑니다. “용건만 간단히” 딱 좋아 하는 스타일, 깔끔한 만남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세상의 맥락에 갇혀 있지 않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만으로는 관계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엠은 상대에 대한 친절한 배려와 함께 제품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모든 식구들이 스스로 칭찬하고 격려할 일입니다.

좋은 인연에 감사하고, 동지로서 함께하며 파이팅 해요!



자원봉사가 아닌

새로운 가르침



오산대학교 학생 윤 하 영

EM실천, 매우 낯선 이름이었다. 처음 친형의 소개로 알게 된 이곳은 나에게 너무 신기하고 새로운 모습이었다. 학교 졸업을 위한 자원봉사로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이었고, 장애인분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을 할 줄 알았던 나는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에 대해 너무 낯설었다. EM실천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처음 한 생각은 “가내수공업인가..?” 이었다.

대부분에 장애인 분들이 앉아서 한가지 일만 계속 하고 있었다. 생각 했던 일이 아닌 모습에 약간에 당황스러웠지만, 경험도 없이 장애인분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걱정이 많았던 나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장애인분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이게 왜 일인가?” 평소 활동적인 나로써는 너무 힘들고 지루한 DM우편발송 작업이었다. 게다가 장애인분들이 반갑게 말을 걸어주시면 나는 대충 대답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 뿐 이었다. 정말 수업시간보다 시계바늘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이렇게 한 달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한숨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고 또 버텼다.

그러던 중 문득 장애인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순간 가슴에 부끄러운 땀방울이 흘렀다.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장애인분들은 억지로 일을 하는 게 아닌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일을 하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원봉사를 억지로 했다는 생각에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하였다. 나는 깨달았다. “세상에 장애와 패배자는 없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승리자라고.” 그 후로 난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며 봉사를 했고, 너무 뿌듯하고 즐거웠다. EM실천에서 봉사시간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받았다. 이제는 나의 이득을 위한 자원봉사가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러 가고 싶다.

EM실천... 잊지 못할 한달의 추억이었고, 같이 고생한 친구들과 박미선 팀장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나의 스승 분들인 EM실천 모든 장애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2012년을 시작합니다

인쇄사업부 주임 신영권

2011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간다.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지난 몇 년, 삶과 일상의 연속성이 끊겼던 암운(暗雲) 속에서 다시는 아프지 말자고 다짐 했었다. 삶에 대한 사랑으로, 대상포진을 앓았었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했던 지난날들에 대한 복수처럼 신경세포들이 온 몸 구석구석을 찌르며 실연의 상흔(傷痕)만 남았었다. 그러나 이제 분주했던 봄·여름과 결실의 가을을 보내며 더 이상 외롭지 않은 하얀 겨울을 맞이하고, 송구영신(送舊迎新)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른 아침 출근길의 붉은 태양을 바라본다.

지난 한 해, 자기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자립심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취업유지모임에서 개최한 '정신건강과 취업을 위한' 사례 발표 세미나는 기대 이상의 호응 속에 우리 모두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비록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기지 못해 여름 캠프를 같이 하지 못 한 아쉬움이 크지만, 파주 임실치즈마을로 다녀왔던 가을여행도 나름대로 재미있었다.

장기 주재원으로 중국 상해에 파견된 둘째 여동생을 따라 중국에 가 계신 어머니와 낯선 이국땅에서의 재회와 상봉, 그 여름은 유난히 뜨겁고 온 몸이 녹아내릴 듯이 지열(地熱)로 이글거렸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남은 나와 막내 여동생은 퇴근길과 주말 여가를 같이 하며 서로를 챙기고, 그동안 소원했던 벽을 허물고 다정한 연인처럼 가까워졌다.

그러나 내게는 또 하나의 집과 가정, 가족이 있다. 바로 EM실천!

인쇄실의 낮익은 기계 소리, 선생님들과 우리 근로 장애인들의 꿈과 희망, 열정으로 커가는 EM실천이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단 하나의 연인(戀人)이다.

모두들, 건강하게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자!

2012년 흑룡의 해에도 하늘 높이 비상(飛上)하자!
파이팅! EM실천!

혼자서도 잘해요 Q&A

여성 주거시설 『꿈꾸는집』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신우리

그것이 알고싶다. 앞선 소식지에는 주거시설생활자들의 독립에 대하여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주거시설담당자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주거시설에서의 독립준비 과정에 대하여 소개하고 한다.

Q 독립이란 무엇인가요?

A 병원, 장기입소시설 등 시설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어도 집안에 고립되고, 의존해 있는 사람들이 의존하려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Q 왜 독립을 해야 하는건가요?

A 오랜 시간 사람들과 소통이 없으면 인간관계에서 말도 없어지고, 활동도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소극적인 인간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독립은 정신장애인 개인이 기존의 비자발적이고 소극적인 인간관계를 벗어나 자발적이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독립은 한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Q 독립을 하기 위해 주거시설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나요?

A 식사준비, 빨래, 청소 등 일반 가정에서 하는 기본적인 생활훈련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 후에 지역사회의 문화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사회기술훈련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단기여행(민속박물관, 오이도 등), 영화관람, 연극공연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퇴소기간이 되는 회원들의 욕구에 따라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준비과정은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독립을 한 이후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요?

A 독립 후에 3~6개월간 사후관리를 각 주거시설마다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새로돌는집과 꿈꾸는집 경우에도 독립한 회원에 따라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반 1~2개월은 전화연락이나 가정방문을 통하여 독립한 회원들의 생활의 어려움 등을 회원과 함께 체크합니다. 이후에는 주거시설이 연합하여 진행하는 격월로 진행이 되는 밑반찬만들기,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에 독립회원의 의사에 따라 참여하도록 하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합니다.

또한, 독립회원들만의 모임인 '파월! 독립'을 분기별로 진행하여 독립회원들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면서 독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독립을 하기위해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A 회원의 욕구에 따라 다른 독립과정을 거칩니다.
 지역사회로 독립을 희망하는 회원의 경우 ① 경제력 확보를 위한 취업장을 연계하고
청약저축 및 적금가입을 유도합니다. 퇴소일을 기점으로 ② 3~6개월 전부터는 전세임
대, 공공임대, 가족지원 등을 통해 독립 후 보금자리를 확보에 주력합니다. 보금자리가
 확보 된 후에는 필요한 ③ 가전제품 등을 구입 후원을 받으며 물적지원 연계를 하게 됩
 니다.

Q 독립을 하면 어떤 집으로 가게 되나요?

A 회원의 상황에 따라 전세임대, 공공임대 등 다른 형태의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저소득
 층 회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활용하여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기존 다가구 주택들을 한국토지주택 공사가 저렴하게 임대.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임대하는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 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법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거주지를 확 보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조건(보증 금, 월 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

Q 비용은요?

A 독립에 필요한 비용은 독립형태에 따른 보금자리 마련은 500만원부터 다양합니다.
 보금자리 마련 후에 가전제품을 구입은 중고매장을 이용하여 100~300만원 가량 구입
 하게 됩니다. 독립한 회원들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보금자리와 생활용품이 마련 된 후에
 는 월 임대료, 세금 등을 포함하여 20~30만원 정도 비용이 소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생활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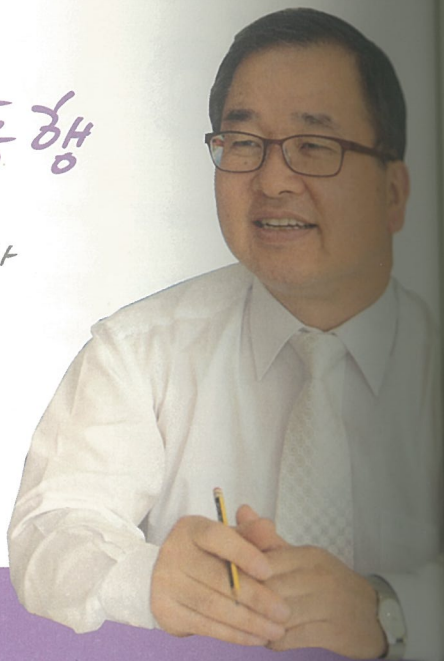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사람이 누릴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결정권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을 위해선 첫째로 개인적인 환경이 구성되어야하고, 보조적인
 사회적지원과 제일중요한 자기자신의 삶의 통제와 결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의미있는 삶을 살기원하고 자기만의 인생을 꿈꾸며 살죠.
 여러분만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

남부발전과의 동행

(Supply Management와
3-win 전략) ”

한국남부발전(주) 계약자재팀 팀장 김 상 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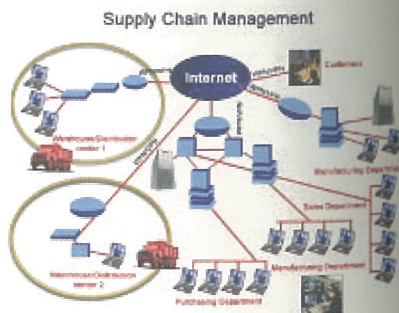
구매개념의 진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제반 재화와 용역, 서비스에 대한 구매활동을 「Supply Management」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업에서 구매를 정의 할때 과거에는 단순한「Purchasing」 좀 더 복잡한 개념의「Procur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으나 기업경영이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우수한 Supplier를 발굴하여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에 구매에 대한 개념이 진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나 포스코 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우수 협력사의 발굴과 육성을 통한 Supply Network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였다. 협력사 관리시스템은 국내외 다른 기업들에게 표준 모델화되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이 오늘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던 것이다.

한국남부발전의 Cyber Warehouse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은 2001년 4월에 한국 전력공사의 발전부분이 별도 분리되어 설립된 회사다. 지난해까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었다가 금년부터 시장형 공기업으로 관리체제가 전환되었고 최근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장기 비전 수립과 비전달성을 위한 혁신활동을 수행중에 있다. 남부발전에서 추진하는 혁신활동중 “Cyber Warehouse 구축”이라는 특별한 전략과제가 있다.



직역하자면 "사이버 공간에 자재창고 구축"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부발전에서 생산하는 전력(電力)은 하루 24시간, 일년 365일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공급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發電)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자재의 조달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재가 필요한 시점에 입찰공고를 해서 공급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공급사는 정해진 기간내에 자재를 납품하였다. 자재중 조달기간 긴 일부는 자재 창고에 보관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달 시스템은 "Purchasing" 수준의 조달형태이다. 변화되고 있는 구매개념에 맞춰 남부발전은 Purchasing에서 Supply Management 레벨까지 구매체제를 개선하고 있다. 우선 구매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사업장별로 행해지고 있던 구매활동을 한곳으로 통합하였다. 구매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었고 전문적인 구매역량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발주방식도 기존 소요시점에 일회성 조달방식에서 자재 유형별로 그룹화 하고 그룹별로 공급사를 사전에 심사(공급능력 + 가격)를 통해 선정하여 자재가 필요한 시점에 공급사에 인도 지시만으로 공급되는 체계로 변경하였다.

조달체계 개선으로 3-Win

과거 40여일 걸리던 조달행정기간이 단 하루로 완료됨으로서 조달 리드타임이 95%이상 감소시켰다. 공급사들에겐 일정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년 이상씩 장기 공급계약을 했다. 상시 운영되어야 하는 발전설비 특성상 조달리드 타임 단축은 곧바로 설비운영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고 이는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여기에서 3-Win이 발생된다. 실시간으로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남부발전은 설비안정 운영과 자재관리에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고, 장기계약으로 일정물량을 확보한 공



급사는 경영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고품질 전기를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부발전은 이러한 조달개념을 발전설비용 자재에 국한하지 않고 행정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조달분야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남부발전 본사 및 8개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쇄물을 증중장애인 생산시설을 갖춘 「EM 실천」과 인쇄물공급 장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공급계약으로 남부발전은 구매행정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고 EM실천과 같은 사회적 기업에게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을 공고히 해준다. 또한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우리사회를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구매(Supply Management)를 통해 3-Win이 실현되는 셈이다.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Supply Management를 기업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기업이 소속된 시장에서 리더가 되기도 한다. 남부발전과 같은 공공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일반 민간기업과는 달리 국민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 경쟁력 강화가 사회 발전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남부발전과 협력사만의 2-Win을 뛰어넘어 우리사회와 국가의 발전까지 고려한 3-Win 전략을 세우고 혁신을 추진하는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때 남부발전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견된다.

“ 2012년 달라질까? 복지정책 ”

1

체감도 높은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마련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중앙부처 복지사업 전체로 확대해 서비스 누락·중복 방지에 노력하는 등 복지부 중심으로 각 부처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중복 여부 등을 점검·조정하고, 사업 신설·변경시 사전협의를 의무화한다. 또한 복지담당공무원을 2014년까지 7,000명을 추가 확충하고, 시군구별로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해 지역별 통합 사례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연계범위를 복지·보건 외에 고용·주거·교육서비스까지 확대해 민간자원 활용을 제고한다.

희망을 주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완화하고,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을 개선토록 했으며, 긴급복지 대상 지원기준·사유 완화 및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긴급성 판단 등에 대한 업무 담당자 집행 재량권을 확대한다. 복지소외계층 상시발굴을 위한 '좋은 이웃들' 시범사업 30개소를 추진하고 좋은 이웃들은 지역의 이·통·반장, 복지위원,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하는 등 빈곤층의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인 '희망기움통장'과 탈수급시 2년간 의료·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이행급여를 확대한다. 장애인의 등록부터 복지욕구 조사, 서비스 연계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을 추진하며,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중앙·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해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연계·가족 상담 등을 실시한다. 또 2013년 7월 성년후견제 제도에 따른 발달·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위한 성년후견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Wet House(주취자 특별재활시설)'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알콜중독 노숙인에 대한 주거 및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신과·내과전문의 등이 알콜·정신질환 밀착상담을 실시하는 알콜·정신질환 노숙인 위기관리팀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

3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활용 고도화

심리·정서 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R&D를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서비스기관 '등록심사·평가·품질인증'의 단계적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한다. 외부 공익이사 도입, 운영정보 공개, 성폭력범죄자 근무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투명성 및 인권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추진 등 처우개선방안이 추진되며, '나눔기본법'을 제정해 나눔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 제도도 도입된다.

한걸음 앞서 준비하는 안락한 노후생활

영세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연금보험료의 1/3을 지원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 등이 보험료 납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납입기간을 확대한다.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는 연금수급 개시연령과 가입상한연령 연동 등 가입공백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비·장제비·전월세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연금수급자 지원을 위한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을 실시한다. 연기연금 신청대상 확대 및 가산율을 연 6%에서 7.2%로 인상을 추진하고, 연금액의 일부분만 연기하는 부분연기연금제도 도입모델도 마련하는 등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 20만개에서 22만개로 확대한다. 치매·중풍질환 노인의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하며, 이에 따라 대상자가 2만4000명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반기부터 동절기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을 시범운영해 안전사고 가능성 및 난방비 부담을 경감토록 한다.

4

5

보육지원 시스템 내실화와 취약아동 지원 강화

어린이집의 세부 비용, 교직원 경력, 평가인증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도입되며, 보조금 부정수급, 급식·안전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한다. 시설 폐쇄 또는 원장 자격을 일정기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도 추진된다. 또한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5세아에 대해 보육료·유아학비를 전 계층에 월 20만원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대체교사 인력 Pool 구성·지원 등 근무여건도 개선된다. 어린이집 설립자의 자격을 마련하고, 부채 비율을 제한하는 등 신규 어린이집 설치·인가기준을 강화하며, 어린이집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용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립지원 프로그램 대상을 시설 아동에서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까지 확대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도 5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드림스타트 센터 설치지역을 181개소로 늘리고, 사업운영 평가, 만족도·효과성 조사 등 체계적 관리가 강화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15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인원도 9520명으로 확대된다.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가 구축되며, 이를 위해 흡연경고그림이 도입되고, 학교·공중이용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주류판매·음주금지가 추진된다. 지역사회와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건강도시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고 평가인증제도는 의료·안전·환경·사회경제적 요인 등 각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WHO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덜 짜게 먹기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나트륨 표시대상 가공식품 확대 등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에 노력한다. 공휴일 검진을 확대하고, 연령별·성별 목표질환 중심으로 검진체계 및 검진항목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도 강화된다.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인센티브 및 예방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사업을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4월부터는 고혈압·당뇨 환자가 동네의원 지속 이용시 진찰료 경감과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건강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한 사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6

7

보건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마무리

10월부터는 직장가입자에게 근로소득 외 고액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사업·금융소득 외의 연금, 기타소득 등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전·월세금 기초공제 및 인상 상한선을 적용하고, 전·월세금 상승으로 부채 발생시 공제 후 보험료를 적용토록 했으며, 또 입원 포괄수가제(DRG)를 병·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전체로 확대된다. 보건의료인의 3년 주기 면허신고를 의무화한다. 일반의약품 중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가정상비약에 대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고 4월부터 추진되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토록 준비하고, 의료분쟁 상담 및 세부 절차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한다.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투자 강화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들만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임신출산 진료비가 4월부터는 50만원으로 상향 지원되고, 1월부터는 국가필수예방접종(9종) 본인부담금이 5000원으로 경감된다. 또 중증의상센터가 신규 설치되고, 외상전담 전문의 양성이 지원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어린이병원 등 국가의 공급·육성이 필요한 전문진료분야에 440억원이 투입되며,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 정신보건모형을 수립하고,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을 위한 광역·기초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확대한다. 주류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에 포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허가권과 단속·처분권 합리화도 추진되고 식품에는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중심 표시로 개선키로 했다. 또한 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유망한 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한시적 신의료기술 인정제 도입이 추진되며, 줄기세포·재생의료 R&D 투자를 149억원에서 45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10대 전략적 R&D 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8

2011년도 사업평가

- 개별사례에 대한 집중도 향상,
- 정기적인 사례회의
-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및 성과
 -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자격증취득
 - 유관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 법인산하 시설과의 연합 체육대회
 - 정신보건센터와의 취업서비스 연계
 - 바우처사업단의 서비스 의뢰
 - 지역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
 - 외부자원사업을 통한 프로그램진행

-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질적 보강
 - 서울형사회적기업인력 · 노동부사회적기업인력
 - 인쇄, 디자인관련 서비스의 양과 질적 향상

-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노력
 - 설비보강
 - 디지털인쇄기기
 - 현수막출력기, 코팅기
 - 기능보강사업 (대릉테크노타워 6차 1002호 임대)
 - 품질향상 : 수익사업별 평가회의 및 안전교육, 3정5S정기점검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구 분	내 역		구 분	내 역	
	2011년 예산	2011년 결산		2011년 예산	2011년 결산
합 계	1,928,716	2,082,570	합 계	1,928,716	1,720,436
사업수입	1,226,550	1,377,111	사무비	500,151	445,761
이용자 부담금수입	1,810	1,810	재산조성비	75,000	72,501
보조금 수입	국고보조금	245,261	사업비	1,145,722	1,034,047
	법인보조금	5,000			
기타수입	450,095	454,268	기타지출	207,843	168,127

2012년 사업계획

• EM실천 10주년 기념

- 금천구 직업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사업별 전문성향상을 위한 인적, 물적자원개발

- 원격교육, 관련 전시회참여, 설비 및 프로그램 강화
- 사업별 전문성 강화

• 전년도 매출대비 10% 향상

- 2011년도 사업매출대비 10~20% 매출향상
- 사업에 대한 매입매출관리

• 장애인직업재활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종사자 및 참여자의 동기화

-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총괄을 통해 분기별 프로그램 운영계획

• 사회적기업 & 공드레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강점강화

- EM실천의 강점강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 방문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구 분	내 역		구 분	내 역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
합 계	1,928,716	2,138,182	합 계	1,928,716	2,138,182
사업수입	1,226,550	1,506,900	사무비	500,151	421,908
이용자부담금수입	1,810	7,000	재산조성비	75,000	109,000
보조금	국고보조금	245,261	사업비	1,145,722	1,581,671
수입	법인보조금	5,000			
기타수입	450,095	361,148	기타지출	207,843	12,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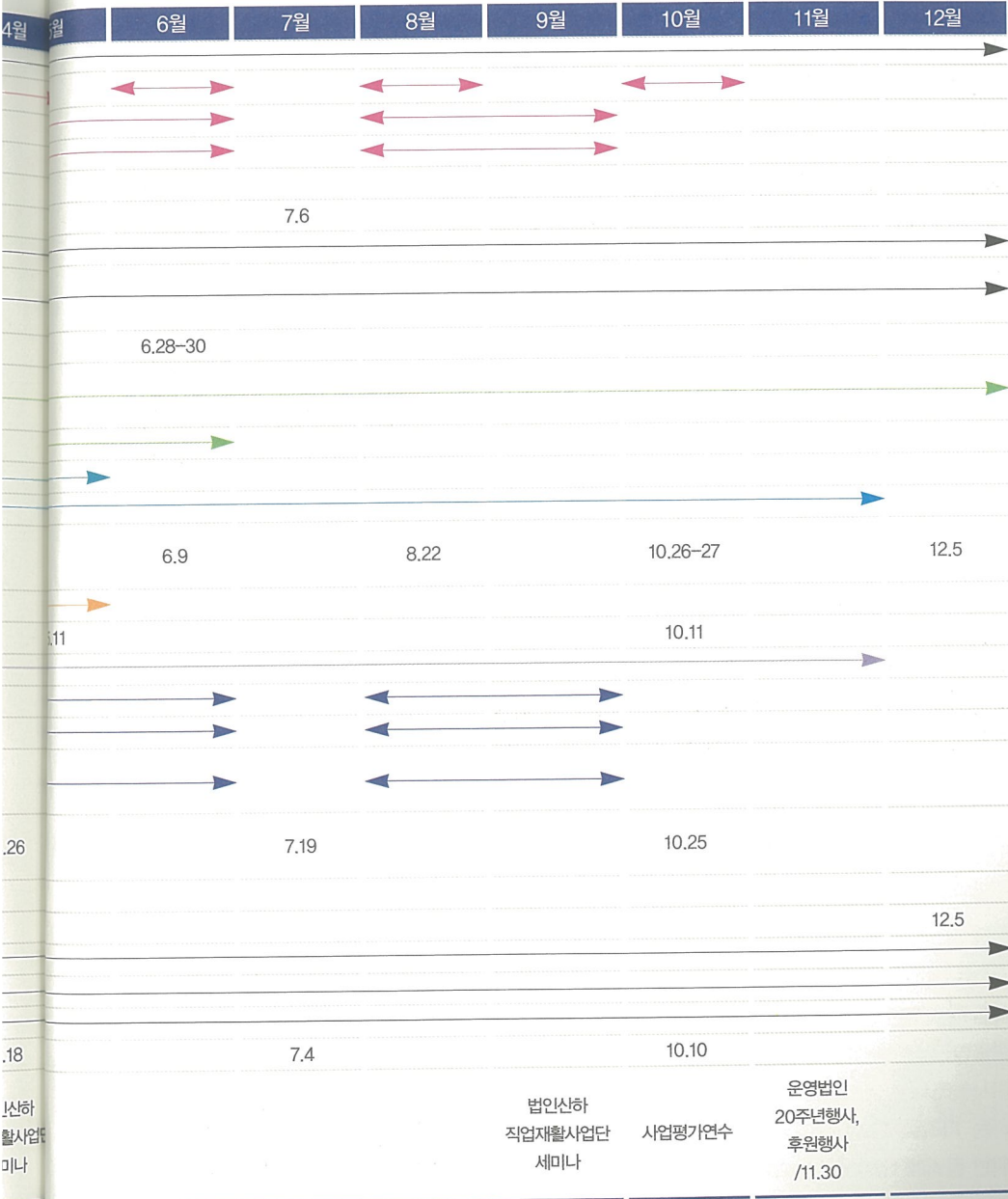
2012년도 사업일정

프로그램명	진행내용	1월	2월	3월	4월
상담	개인상담, 일반상담, 가족상담	←			
집단상담	5가지 주제로 그룹상담		↔		←
한자교실	한자능력시험, 자격취득반		←	→	
한글교실	펜글씨자격취득반		←	→	
인권교육	당사자 권리알기		←	→	
성교육	직장내 성교육				
안전교육	산업안전교육	←			
취업유지모임	인쇄, 복사, 현수막사업에 일부근로장애인, 외부 취업장애인의 자조모임	←			
여름캠프					
정기사례회의	정기사례회의, 위기사례 및 지역사회연계사업논의			←	
정기직업평가	외부 직업평가센터를 통한 직업평가				
신규이용자가정방문					←
동아리	등산, 불링, 칠보공예를 통한 여가활용		←		→
가족회	장애인근로자의 가족, 복지시설담당자간의 자조모임		2.22	3.16	
체육대회	장애인근로자 연합체육대회				
소방교육					5.11
컴퓨터교육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컴퓨터교육			←	
직업교육	출퇴근관리교육		←	→	
관외훈련교육	외부 납품 및 대중교통, 위생관리교육		←	→	
스트레스교육	직무수행에서 또는 대인관계, 일상생활과정에서의 스트레스관리		←	→	
자치회의	작업환경에서의 우수근로자, 동료의 경조사챙기기, 기타논의사항에 대한 토론	↔			4.26
명절프로그램		↔			
송년회					
사업평가		←			
실습생모집, 교육		←			
자원봉사모집 및 교육		←			
운영위원회		1.18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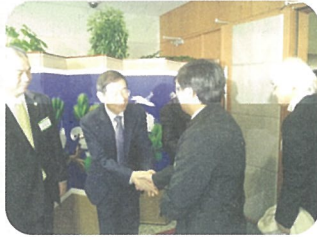
행사

10년
세미나/3.16

법인산하
직업재활사업단
세미나



NEWS



금천구청 신년하례식 (2012. 1. 4)

사랑을 나누고 사람과 소통하는 희망의 2012라는 주제로 금천구청에서 신년하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반가운 분도 오셨는데... EM실천 운영위원이며 금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태섭의원님, 금천구의회 의장이신 서복성의장님의 축사와 금천구청의 발전을 위해 축사를 해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체결

(2012. 1. 27)

EM실천 근로장애인들의 연간 근로계약서 체결건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수막팀에 새롭게 투입된 곽철남과 EM실천 김영환 원장님의 기념사진 촬영~~

법인 정기이사회 (2012. 1. 30)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의 2012년도 정기이사회가 새롭게 이전한 중랑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에서 있었습니다. 한울법인 산하시설의 기관장과 팀장들이 함께한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2011년을 평가하고 2012년에 새롭게 계획하는 자리로, EM실천 10주년과 함께 한울법인 20주년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연구사업 (포커스그룹인터뷰) (2012. 2. 16)

2011년 연구사업수행중 각팀장, 팀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커스그룹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포커스그룹형 인터뷰가 낯설어서, 직원들 모두 긴장했었는데 잠시나마 서로에 대해 그리고 EM 실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인권교육 (2012. 2. 24)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공동대표인 허진선 선생님을 강사로 '나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인권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교육은 1분기에 5회기로 진행되며 5명의 근로장애인이 신청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기총회 참석 (2012. 2. 28)

2012년도 서울시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상반기 시설장대회 및 정기총회가 여의도에 위치한 이룸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원장님, 박미선 팀장님이 다녀왔고, 김영환원장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EM실천의 '희망이와 실천이 활동계획'

희망이



실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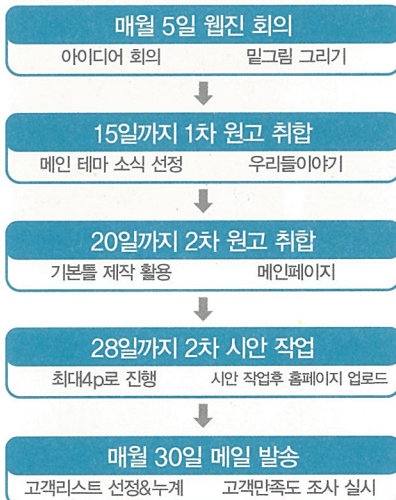


EM실천은 사회적기업이면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2012년 EM실천은 지면소식지 '희망이'와 웹진소식지 '실천이'를 통해 고객과 가족, 유관기관,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뵙고자 합니다.

2012년 희망이와 실천이는 한달에 한번 또는 분기에 한번씩 EM실천의 기쁜소식,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EM실천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고객, 가족, 유관기관 종사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2년 새롭게 만들어진 웹진 '실천이'의 활동계획



〈주요 내용〉

- EM실천의 활동소식
- 우리들의 고민거리에 대한 전문가의견
- 후원, 봉사자의 도움요청
- 장애인근로자들의 글자랑
- EM실천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식나누기
- EM실천 및 운영법인 알리기
- 지역홍보하기



직장
오래다니기

어머니
건강하기

운동해서
건강하기

좋은여자
만나 결혼하기

간기능
회복하기

임대주택으로
독립하기

규칙적인
생활하기

살빼기

노래
잘부르기

결혼 잘하기

가족모두
건강하고
웃음잃지 않는
2012년

알뜰하게 살자
"긴축정책"

동료와
잘지내기

내성적
영양제지킬

강한
체력만들기

책을
많이 읽기

2012년에 함께 할 EM실천 가족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 장애인근로자, 실습생, 자원봉사자

2. 자격요건

1)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인쇄, 복사, 현수막, 우편발송분야에 흥미와 적성이 있는 자
- 서울시 거주자(금천구에 거주하는 자 우선채용예정)
- 위 조건을 충족하며 맘껏 일하고 싶은 자

2) 사회복지현장 실습생

- 장애인직업재활사업에 대해 관심과 경험을 쌓고 싶은 학생

3) 자원봉사자

- 교육분야(한자, 한글, 스포츠)
- 직업분야(컴퓨터, 직무지도)
- 장애인들의 말벗과 친구가 되어 줄 자

3. 모집기간 : 365일

4. 연 락 처 : 02-875-9744,33



since 2002 **EM**실천
소통과 도약의

EM실천 10년 기념세미나 ‘금천구 직업재활 서비스와 EM실천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 일정 : 2012년 3월 16일 금요일 오후 14:00~17:00
- 장소 : 금천구청 대강당